

## “경제 살리자”... 교계 ‘허리띠’

과소비 추방·해외 성지순례 자제 등 확산... 매일 위기극복 기원

총체적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자는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계도 '이대로 있을 수 없다'며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한국불교총연합회와 불교계 각 종단과 사찰들은 과소비·해외여행 자제, 외계종 구입금지, 송년법 축소, 자가용이용 자제, 에너지 절약 등의 경제위기 극복운동에 돌입했다.

조계종은 11월25일 불자실천 지침으로 △해외성지순례 및 여행 자제(부득이한 경우 종단에서 사전신고 승인) △외국환전 △외국여행자제 구입 및 외화남용을 비롯한 각 종단과 사찰들은 과소비·해외여행 자제, 외계종 구입금지, 송년법 축소, 자가용이용 자제, 에너지 절약 등의 경제위기 극복운동에 돌입했다.

한때는 11월27일 종단간부 회의를 열고 △해외여행 자제 △송년법과 각 말사 운동경비 절감 △신속복사 최대 자제 △자동차 10부제운행 실시 △승도대상 저축장려 및 과소비 추방캠페인 등을 내용으로 하

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앞서 경남불교협회(회장 월파·홍도사 주지)는 11월 24일 창원 KBS홀에서 봉행한 '경남불교지도자 호국기원 영신대회'에서 총체적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국가 지도자들의 대오각성과 국민 대화합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장 설조·불국사 주지)을 비롯 한국

노총 등 32개 시민단체 대표들도 11월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을 선포했다. 한편 작지사(주지 녹원)는 5일

사를 축소하는 등 부도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자는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편 교황의 여파로 울거울 인도, 미얀마 등 성지순례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성지순례를 주관하고 있는 교계 여행사의 경우 모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 해외여행사의 한 관계자는 "1달러 9백 원에서 마린드 프로그램이 1달러당 1천1백원대를 유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어 여행사측도 어렵지만 불자들의 외국여행자제로 인한 취소가 늘고있다"고 말했다.

(김중근·현영우 기자)

###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영종개원인



장인욱

우아하게 서있는 것이었다. 나는 할머니 생각조차 없이 그대로 백로를 향해 총을 향해 쏘았다. 적중했다. 맞추어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터덜터덜 걸어와 보니 누가 백로를 주었다 초소 앞에 놓았다. 죽은 백로는 날개를 활짝 벌려 사지를 뻗 채 있어져 있었다. 그 심복잡이란...

### 나는 왜 백로를 죽였나

내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이 엄습했다.

‘내내 왜 나는 저 백로를 죽였나. 저 백로는 왜 무서로 내 총에 맞은 것일까. 죽일 이유도, 또 죽여서 취할 이득도 없으면서 왜 나는 저 백로에게 총을 쏘았나. 맞춰 불려도 여러 방을 쓴 총에도 맞았을 실력인데 한방에 죽인 악연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의문과 뉘우침을 마음속으로 던졌다.

그 후로는 뭐 한마디도 죽일 수 없게 됐다. 심지어 바퀴벌레 등 해충이라는 미물조차도 죽이지 못했다. 지금 내 사무실에는 커다란 하그림이 걸려있다. 여느때 문득 그 그림을 보다가도 그때 그 백로를 떠올리고는 참회를 하게 된다.

또 내 큰딸 이름을 속고 또 속고해 지은 것이 ‘수안(秀婉·영어표현상 백조 swan)’임을 생각하면 백로는 나에게 결코 자지 않은 인연이다. 그리고 나는 이글을 지성으로 그 백로를 천도하는 발원문으로 또 천도 참회문으로 쓴다.

(주)남영 회장

## 환경오염 방지시설 의무화

조계종 환경위, 전국사암에 공문

조계종 산하 모든 사찰은 내년 6월 30일까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조계종 생활환경위원회(위원장 능관·총무원 사회부장)는 11월26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대책 결과보고요청서'를 각 교구본사 및 직할사암에 발송했다.

생활환경위원회가 이날 발송한 공문은 △환경오염 방지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98년 사찰예산 산정 △환경오염 실태조사 실시 △오염방지처리시설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때부터 각 사찰은 29일까지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98년 6월30일까지 생활하수 정화조, 쓰레기 소각장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관련 조계종 생활환경위원회는 지도감사반을 구성, 98년 2월 16일~21일까지 일주일동안 사찰환경오염지역 및 시설 지도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 “대통령선거를 국민통합 기회로”

월주스님 대국민성명

한국불교총연합회 회장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11월24일 대통령선거와 참세일로의 경제위기를 맞아 정치권과 국민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월주스님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입후보자와 국민에게 드립시다" 재외의 성명에서 월주스님은 "이번 선거는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자

억감정을 제반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을 통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정치, 경제 남북문제 등 8개항에 대한 자성과 발전적 정책제시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대선과 관련 월주스님은 "중요인과 종교단체는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국민을 계도 해야 하고, 국민들은 후보자들의 정책과 그 정책의 수행능력 여부를 파악,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정부 '문화유산현장' 8일 선포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보존해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것을 명문화한 '문화유산현장'이 제정됐다. 11월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현장은 8일 청역공에서 열리는 '97문화유산의 해' 폐막식에서 공식선포

된다.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담은 서문과 5개의 세부조항으로 구성된 이 현장은 책자나 홍보물, 표식 등에 수록되어 지속적인 국민 문화유산 보호 운동으로 펼쳐진다.

#### 문화유산현장

-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 문화유산은 주위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으로 결코 파고 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된다.
-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학교·사회 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
-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 제3회 신행수기 공모 마감 12월15일

현대불교신문이 제3회 신행수기공모를 합니다. 가슴에 붙여두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는 희를 거듭할수록 강등과 신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꾸준한 상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 공모 내용

- △ 주제: 생활속 수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 분량: 2백자 원고지 30매 내외
- △ 접수처: 서울시 중구 경자동 110-33 (우 110-170)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722-4162
- △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8년 신년호
- △ 시상내용
  - 유마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본사시상상: 상장 상품
  - 특별상: 상장 상품·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 동국대 새싹불자 포교나섰다 22편

### '법성계' 지은이 누구인가 9편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구독·광고 문의 (02)737-8881

연림마당- '萬佛 조성' 21편

## “문화유산은 과거다?!”

'문화유산은 과거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 전통의 멋

본 작품에는 옛 선조의 슬픔과 희기 스며있으며 외적으로는 전통의 멋과 생활공간의 우아함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며 내적으로는 기정의 행복과 자손의 번영을 지켜드립니다.

문화보존은 우리의 의무며, 문화교류는 우리 미래로의 비전입니다. 우리 문화가 있어야 할 곳, 그 자리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이 함께해야 합니다.



100여개의 부속품을 꿰고 또 다듬어 섬세한 구조와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재현, 한경된 작품 한점 한점에 소경변모를 부여하였습니다.

#### POINT

- 푸른 문화유산의 새가 저절로가는 지금 저희 공방에서는 한점한 작품을 제작 비에 공방해 드립니다.
- 월급기부금 ₩60,000 → ₩20,000
- 매일매일 ₩50,000 → ₩40,000
- 금관총금관 ₩50,000 → ₩20,000

- 에일레 (鐘 寶號 第29號) 정인장신의 전통기법과 현대 첨단 과학 기술을 조화시킨 명품으로서 탁월시 물려 퍼지는 웅장한 소리는 우리민족의 숨결을 일고 있으며, 그 어떤 또한 아름다우며 찬미받습니다.
- 재질 청동 ●규격 410×235×445mm
- 기술자문 서울대학교 기술유산연구소
- 문양자문 서울대학교 박물관장, 전 국립중앙 박물관장
- 작 가 원 작곡 작곡내역
- 1985년, 보신각 새종 ● 1986년, 수인사인종 ● 1988년, 전주시인종 ● 1993년, 역으로 '93 대종 ● 1993년, 청정사인종

- 금관총금관 (寶號 第87號) 우리나라의 금관총 가장 대표적인 금관으로서 내외국의 화려한 그시대의 화려한 문화를 상징시켜 주며 정교함과 섬세한 또한 세계 어느나라 금관 못지않게 우수하며 우리 민족의 뛰어난 기교를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 재 질 동, 순금도(99.9%), 재분류 ● 규 격 200×200×400mm

